

도심서 닭 키우고 택시 쿠폰 주고... 세계의 코로나 극복기

토론토, 도심 닭 사육사업 기간 연장 피렌체, 택시연합과 할인 쿠폰 발행 하와이, 경범죄자 조기석방 행정명령



지난 3일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밴쿠버의 커머셜 드라이브에서 한 시민이 자전거를 타고 있다. /뉴시스

‘도시에서 닭 기르기,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에게 할인 쿠폰 주기, 경범죄자를 구금 않고 풀어주기...’

같은 구석이라곤 눈썹과 찾아볼 수 없지만 모두 코로나19 대응의 일환으로 세계도시가 내놓은 묘책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5일 서울연구원 해외통신원들이 보내온 ‘세계도시동향’에 따르면 캐나다 토론토시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자 ‘도심 닭 사육 시범사업’ 기간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도심 닭 사육 시범사업은 도시농업 등 자연친화적인 생활양식을 선호하는 시민들의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토론토시가 지난 2018년부터 시내 4개 지역구에서 진행한 3년짜리 프로젝트다.

먼저 시는 닭장의 크기와 위치 등에 관한 내용을 담은 닭 사육 기준을 마련했다. 닭장의 높이는 2m, 면적은 최대

9.2평을 확보토록 하고 암탉 수만큼 닭들이 쉴 수 있는 햇대를 두도록 했다. 반려동물 양육 혹은 달걀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암탉만 키울 수 있도록 했고 사육 두수는 4마리로 제한했다. 암탉을 제대로 보살피지 않으면 학대로 간주하고 벌금을 부과해 사육자가 닭의 건강과 복지에 대한 책임을 지게 했다.

당초 토론토시는 닭 사육 시범사업을

2018년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시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로 식량부족을 걱정하는 시민들이 증가하면서 닭 사육 정보에 대한 문의가 늘어나고 시 외곽 농장에서 병아리 판매가 50% 이상 급증하자 프로젝트를 일년 더 이어가기로 했다.

닭 사육 시범사업 참가자는 뒷마당이 있는 단독주택 거주자, 타운하우스 거주자, 집주인의 허가를 받은 임대주택

거주자여야 하며, 소정의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한다. 현재 79가구, 230마리의 암탉이 등록된 상태다.

고한나 통신원은 “닭 사육 시범사업 프로젝트 시행으로 콜푸드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남은 음식을 재활용해 음식물쓰레기를 줄였으며 신선한 달걀 생산으로 코로나 팬데믹 기간, 먹거리 확보에 대한 불안감을 완화하는 등 많은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다”며 “시는 시범 프로그램을 1년간 더 진행한 뒤 내년 3월 최종 권고사항이 담긴 보고서를 발표, 확대 시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탈리아 피렌체시는 택시연합과 좋은 여행(Buon Viaggio·부온 비아지오) 프로젝트를 기획해 택시 이용 할인 쿠폰을 발행, 시민들에게 보급하고 있다.

부온 비아지오 쿠폰은 5유로짜리 20매로 구성된 100유로의 할인 쿠폰이다. 택시 이용 금액의 최고 50%(1회 최대 20유로)까지 쿠폰 적용이 가능하다.

쿠폰 지급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과 임신부, 자가 운전이 불가능한 시민, 이동제한 조치로

병원 출근이 어려운 의료업계 종사자, 대중교통 이동 제한으로 피해를 본 대학생 등이다. 시민들이 부온 비아지오 홈페이지에 접속해 쿠폰을 신청하면 피렌체 택시연합이 우편으로 쿠폰을 보내 준다.

미국 하와이주는 교정시설 과밀화를 방지하고자 경범죄자 수감 금지 및 기존 수감자 조기 석방 정책을 펴는데 이를 악용한 문지마 폭행과 도난 사건이 이어져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하와이주는 오아후섬 지역 교정센터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자 경범죄자들을 풀어주기로 결정했다. 주정부는 경범죄자에게 구금 또는 징역형을 내리는 대신 가석방 청문회 제도로 이들을 조기 석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주지사 행정명령을 시행했다. 하와이주 대법원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교도소 내 인구수를 줄이기로 한 주정부 방침에 동의, 작년 6월 총 655명의 경범죄자를 조기 석방할 것을 명령했다. 가정폭력 관련 경범죄 혐의로 기소돼 구금 중이었던 범죄자들과 중범죄 혐의를 받고 형이 확정되지 않은 수감자 등이 조기 석방됐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서울형 긴급복지’ 기준완화 올해까지 연장

취약계층에 최대 300만원 지원 코로나19 장기화로 기간 연장

서울시는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조건 완화 조치를 올해 말까지 연장한다고 5일 밝혔다.

서울형 긴급복지는 사고나 실직, 휴·폐업 같은 위기 상황으로 생계절벽에 직면한 취약계층에 생계비·의료비·주거비 등을 최대 300만원(4인 가구 기준)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시는 지난해 7월부터 대상자 소득·재

산기준 조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해왔는데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이 기간을 더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소득기준은 기준중위소득 85% 이하에서 100% 이하로, 재산기준은 2억5700만원에서 3억2600만원 이하로 각각 완화된다. 폐업신고일, 실직일로부터 ‘1개월 경과’ 요건도 폐지해 코로나19 때문에 폐업·실직하고도 바로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했다고 시는 덧붙였다.

서울형 긴급복지는 거주지 인근 동주

민센터에서 상시 신청할 수 있다. 동주민센터는 신청자에 대한 사례 회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갑작스럽게 위기에 처한 시민들이 소득·재산 등 기존 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작년부터 ‘서울형 긴급복지’의 문턱을 낮춰 지원하고 있다”며 “코로나19로 인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총력을 다하고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계 안정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서울시 어린이병원, ‘나래학교’와 업무협약

맞춤형 공공의료사업 추진

서울시 어린이병원은 지체장애 특수학교인 ‘서울나래학교’와 업무협약을 맺고 중도·중복장애 학생을 위한 맞춤형 공공의료사업을 벌인다고 5일 밝혔다.

서울나래학교는 시 어린이병원과 같은 서초구 내곡동에 위치한 공립 특수학교로, 지난 2019년 9월 개교했다. 나래학교 학생들의 약 80%가 지체장애와 함께 중도·중복장애를 갖고 있다.

‘서울형 의료-교육 협력사업’은 중도·중복장애 학생들을 보호하는 선생님 과 학부모들이 장애 아이들의 특수성을



현장 맞춤형 교직원 연수(비대면 교육) 프로그램 운영 모습. /서울시 어린이병원

알고, 보다 전문적으로 돌볼 수 있도록 서울시 어린이병원 의료진이 직접 학교를 방문해 건강관리법을 자문·교육해주는 사업이다. /김현정 기자

‘서울사랑상품권’ 12일부터 추가 판매

4000억 규모 발행

서울시는 오는 12일부터 서울사랑상품권을 판매한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지난 2일 서울시의회에서 추가 경정예산안이 확정된 데 따른 것으로, 추가 발행 물량은 4000억원 규모다.

각 자치구마다 추가 판매 시간이 달라 확인해야 한다. 이달 12일 오전 10시에는 용산·동대문·노원·서대문·강서구, 정오에는 광진·도봉·구로·동작·관악구, 오후 1시에는 성동·마포·서초구, 오후 2시에는 종로·강북·강남구에서 판매가

시작된다.

13일 오전 10시에는 중구와 영등포구가, 14일 오전 10시에는 중랑·성북·은평구가 각각 판매를 개시한다. 8월 2일 오전 10시에는 서초구가 판매를 시작한다. 금천구는 현재 서울사랑상품권을 판매 중인 상태다.

이번에 발행되는 서울사랑상품권은 20개 상품권 결제업에서 10% 할인된 가격으로 살 수 있다. 1인당 구매 한도는 70만원이고 구매한 상품권은 5년 내 사용하면 된다.

/김현정 기자

‘용산공원플랫폼’에 1년간 12만명 방문

서울시는 작년 7월 지하철 6호선 녹사평역 지하공간에 문을 연 ‘용산공원 플랫폼’에 지난 1년간 시민 11만7000여 명이 다녀갔다고 5일 밝혔다.

용산공원 플랫폼은 용산미군기지 부지에 들어설 용산공원의 조성 계획을 알리고, 시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된 시설이다. 지하 1층엔 ‘주제 전시’와 ‘문화 체험’ 공간이, 지하 4층에는 용산공원 세미나와 시민참여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시민 소통’ 공간이 들어섰다. /김현정 기자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5:17 | 해질 / 19:57

7월 6일 (화) 음력 : 5월 27일

수도권 날씨 22~30°C

운동 지수: [Progress bar]

빨래 지수: [Progress bar]

세차 지수: [Progress bar]

외출 지수: [Progress bar]

지역별 날씨: 연천 18/31, 동두천 19/30, 가평 18/31, 파주 19/30, 서울 22/30, 양평 20/30, 용인 22/30, 인천 22/28, 수원 22/30, 평택 22/29, 백령도 19/26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독립기념일맞은美...바이든 “바이러스에서 독립을” /사진 뉴시스
▲SCMP “북한 식량난 ‘고난의 행군’ 때 보다 나아... 中 지원할 것”

▲시진핑, 금주 독일·프랑스 정상과 화상회의... “통상·인권 등 현안 다뤄”
▲남아공, 코로나 신규 감염 2만6000명으로 최고 경신



▲이낙연 대선 출마에 여론론 관심... ‘지일파’ 주목 /사진 뉴시스
▲KIEP “EU 탄소국경세, 관세율 1.9%와 같은 수준... 기업에 부담”